

# 이달의 動靜



■ 서기홍씨 (서울 지부 사무국장) ... 서기홍 서울지부 사무국장을 비롯한 서울 지부 전직원의 얼굴엔 요즘 웃음꽃이 만개했다.

남들은 단잠 속에 푸욱 빠져 있을 첫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동분서주할 정도로 수출공단 근로자 건강검사, 내원자 검사 등의 일들이 쏟아졌다.

『일이 많아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 건강관리기관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보다 더한 일은 못하겠는가.』라고 힘주어 말하는 서국장을 바라보면서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서국장을 비롯한 서울지부 전직원의 긍지심과 인내력에 찬사를 보낸다.

■ 한인수씨 (본부 조사연구부장) ... 윤영식씨 (검사과장), 홍광선 (조사연구과장), 박선주씨 (조사연구부 근무) ... 이들은 뭔가 보람된 일을 마치고 나서즐거움에 들떠있다.

“韓國人の RPHA法에 의한 HBsAg 와 PHA法에 의한 Anti-HBs의 陽性率 調査”라는 제목의 공동논문을 발표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단순한 업무의 차원이 아니라 연구하며 일하는 면모로서의 한국건강관리협회 조사연구부의 모습을 보여준 이들에게 찬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 윤청하씨 (서울지부 홍보관장) 정희상씨 (서울지부 홍보관 계장), 김중하씨 (서울지부 홍보관 주임), 배동호씨, 김은숙씨 ... 윤청하 홍보관장이 홍보관 업무를 맡은 이래 올해 들어 맺어진 홍보관 식구들이다.

단순한 홍보의 차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건강에 관한 의식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이들에게 기대를 걸어봐도 괜찮을 것 같다.

홍보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실천 계획들을 수립해줄기 바라면서, 국민 건강계몽엔 따라 갈 사람이 없을 만큼 정착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 김정현씨 (본부 사업계장), 김학환씨 (본부 감사계장), 최종렬씨 (본부 기사) ... 봄이 미처 오기도 전에 무슨 결혼소식이 한꺼번에 밀어닥쳐 기사를 혼란스럽게 하는가.

평소 “결혼은 무슨...” 하며 내숭(?)스런 웃음을 보이던 새 총각이 경쟁이라도 하듯 1주일 간격으로 한명씩 장가를 간다는 것이다. 무에가 그리도 바빴남!

2월21일엔 최종렬씨, 2월27일엔 김정현씨, 그리고 3월6일엔 김학환씨가 어여쁜 신부들과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을 한다.